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 태 현**

농촌사회의 변화를 사회 구성원인 인구와 원초제도인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지역은 청주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2개리(근교농촌)와 도시와 접하지 않은 충북 보은군의 2개리(일반농촌)를 선정하였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에서 1995-1996년의 1차 조사와 1999-2000년의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에 의한 면접전수조사이므로 연도 및 지역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였다.

일반농촌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 현상은 지속적인 젊은 연령층의 전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자녀세대가 도시로 이주하고, 새로운 가족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 부모세대만 잔류하다가 노령으로 사망하게 되면 기존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농촌의 지역사회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진다. 한편, 근교농촌의 경우에도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청장년층에서 전출과 전입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전통적 특성이 감소하는 대신 비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연령층의 전입으로 중간 연령층을 형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도시 특성이 강한 새로운 지역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핵심단어: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인구, 농촌가족, 노령화, 인구이동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FR-99-041-C00442). 이 연구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감사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지역에서 면접조사를 담당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연구지역의 면사무소 관계자들과 마을의 이장들, 끝까지 성의껏 정확하게 답하여 준 응답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I. 서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도시로 흡수하면서 도시와 농촌 모두 엄청난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농촌에서는 도시로 빠져나간 농업노동력을 대신하여 초기에는 '농업의 기계화'에 의하여 어느 정도 대체되었다. 그러나, 젊고 활동력이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대부분 농촌을 떠나고, 잔류하고 있는 부모세대의 노령화와 함께 우리의 농촌은 사실상 활력을 잃고 말았다(이문용, 1993: 153-154 참조).

최근에는 도시의 일부 젊은 연령층이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농촌으로 젊은 연령층 인구의 회귀현상은 이들이 농촌사회에 직접 기여한다기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주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점(이문용, 1993: 154-155; 김태현, 1993 참조)에서 농촌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대폭 늘어난 1998년의 귀농가구 수는 6,409가구로 1994년 이후 5년간 귀농한 총 11,894가구의 53.9%나 되었다(농림부, 1999). 이들 귀농가구는 도시에 직장을 두고 근교농촌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과는 달리 영농기술지도와 영농창업자금을 지원 받아 농촌에 재정착하는 경우이며, 이농가구의 대부분(89%)이 4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이므로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이 완화되고, 노령화에 따른 농촌사회 자체의 소멸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최근 도시의 일부 젊은 연령층이 농촌으로의 회귀성 이동이 교차하면서 농촌사회의 변화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변화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즉, 근교농촌의 경우 원주민의 노령화는 심화되는 반면에 도시에 직장을 둔 전입자와 소규모 산업시설의 입주에 따른 근로자의 전입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농촌사회의 성격보다는 도시사회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김태현, 1993; 새마을연구소, 1996 참조). 그러나, 도시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일반농촌의 경우에는 도시와의 거리와 순수농업중심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도시의 경기후퇴에 따른 도시주민의 일시적 이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촌인구의 유출이 지속되면서 농촌사회의 노동력 부족, 생활환경의 열악, 노령화의 진행, 환경오염의 만연 등 농촌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도시연구중

심에서 농촌사회연구로 지역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최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공세권 외, 1987; 김일철 외, 1988; 조옥라, 1991; 권태환, 1992; 문옥표 외, 1993; 권태환 외, 1995; 김태현·이창송, 1995; 김홍주, 1995; 김태현, 1996; 정명채 외, 1996 등)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전국자료를 이용한 전국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연구이거나 1회성 조사자료에 의존하여 한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사회실태에 대한 기술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고, 연구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연구결과들을 직접 비교하거나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촌연구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별 농촌의 특징을 비교연구한 보고서(김일철 외, 1988)가 있고, 근교농촌에 대한 학제간 연구(문옥표 외, 1993)가 이루어졌으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시계열 연구로 대표적인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국 농촌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장기에 걸쳐 동태적으로 파악한 것(정명채 외, 1996)이 있지만 농촌유형별 조사대상가구가 50가구 이내로 인구나 가구의 구조변화를 일반화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주요 연구분야로 인구, 가족, 문화(생활방식), 산업과 직업, 조직과 계층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가 상호 작용하면서 사회의 변화가 진행된다. 그 중 인구구조가 사회변동, 사회구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연령계층내에서나 연령계층간의 경쟁이나 역할이 달라지고, 가족, 직장 등 사회조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Estes, 1999; Gordon and Longino, 2000).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농촌사회변화의 주요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인 인구나 대표적인 원초제도인 가족의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즉, 인구가동이 없어도 낮아진 출산수준의 영향으로 인구의 증가는 정체되거나 감소될 것이나 도시로의 인구가동은 농촌의 젊은 연령층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져서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현상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새로운 가족형성이 제한되고, 기존 부모중심의 가족이 노령화를 거쳐 해체될 것이므로 앞으로 농촌의 지역 사회 자체가 소멸되는 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구나 가족의 변화를 농촌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최근 전통 농촌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래 농촌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인구가동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과 잔류 부모세대와 이촌 자녀세대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노령화에 따른 농촌사회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농촌사회를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평야농촌, 중간농촌, 산간농촌, 근교농촌, 그리고 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일철 외, 1988; 정명채 외, 1996 참조).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변화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의 5가지 유형중 도시의 영향을 직접 받는 근교농촌과 순수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중간농촌(이 연구에서는 일반농촌으로 분류) 등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의 농촌마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근교농촌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의 2개 리이다. 이곳은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이며 이 지역의 최대도시인 청주시(인구 50만 명 정도의 중 도시)의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가 청주시까지 수시로 왕래하고, 청주시의 주요지점에 도달하는데 30분 내외가 걸린다. 원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최근 비농의 신규전입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¹⁾ 그리고, 일반농촌으로 충청북도 보은군의 탄부면과 삼승면에서 각각 1개 리씩 선정하였다. 이들 마을이 속한 보은군은 도시와 접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가 없는 전형적인 농촌중심의 군이다. 이 연구대상 마을은 답작과 전작면적이 각각 50%내외이며, 다른 산업시설이 없는 농업중심 지역이다.

이들 연구지역에 대한 사회조사를 1995년 4월(일반농촌)과 1996년 4월(근교농촌)에 실시하였다(사회과학연구소, 1995; 새마을연구소, 1996). 이 조사에서 조사지역의 주거실태와 인구 및 가족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주민의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 후 4-5년이 경과하면서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활동은 물론 주거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의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귀농이 늘어났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전출이 감소(통계청, 1999 참조)하는 등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도 컸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근교농촌과 일반농촌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일반농촌)과 2000년 4월(근교농촌)에 지난 1995년 및 1996년에 조사한 지역을 동일한 방법²⁾

1) 대도시의 확장에 따라 최근 그 기능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 근교농촌은 택지개발 등 인위적인 변화로 도시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농촌으로 잔존하면서 도시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으면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 1995년과 1996년 조사에서 없었던 일부 조사항목을 2000년 근교농촌조사에서 추가하고, 1999년 일반농촌 조사의 보완조사를 2000년에 실시하였다. 새로 추가된 조사항목들은 최근 이동상황과 농촌에 잔류하고 있는 부모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촌자녀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년간 가구원의 전입, 전출자수, 전출 자녀수,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왕래정도, 연락정도, 생활비 보조정도 등이었다.

으로 재조사하였다. 즉, 1999년에 일반농촌 2개 마을(2개 행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179가구(442명)와 2000년에 근교농촌 2개 마을(2개 행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200가구(773명)를 전수조사하였다. 인구변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특성, 이동관련사항과 가족의 유형과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포함한 설문지를 준비하여 면접조사하였다. 연구지역의 농촌조사가 전수조사이므로 연도 및 지역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그 동안의 농촌사회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근교농촌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반농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도간의 변화를 비교할 때에는 구성비를 주로 이용하였다. 농촌조사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외에 경제활동, 주거환경, 가족의식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실시한 1995년과 1996년 조사에서는 장기출타중이거나 면접이 곤란한 경우(면접 거부, 응답불응, 출퇴근 시간상 만나기 어려운 경우 등)를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마을 지도자(이장, 부녀회장 등), 이웃집, 친인척 등을 통하여 모든 가구에 대한 인구관련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으며, 그 외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³⁾. 그러므로, 마을 단위의 인구와 가구수를 직접 비교하는 대신 주로 구성비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5년 전후에 이루어질 동일지역에 대한 농촌조사의 결과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⁴⁾

3) '미상'으로 처리된 조사대상은 1995년 일반농촌조사에서 총 182가구중 32가구(사회과학연구소, 1995: 11)이고, 1996년 근교농촌조사에서 총 210가구중 26가구(새마을연구소, 1996: 6)이다. 그러므로, 일반농촌의 인구는 1995년에 402명으로 1999년의 442명 보다 적었으며, 근교농촌의 인구는 1996년에 767명으로 2000년의 773명 보다 적었다.

4) 한국교원대학교 새마을 연구소에서는 1995년 이후 우리 나라 중부지역의 농촌조사를 연도별로 실시하고 있다. 1995년(일반농촌)을 시작으로 1996년(근교농촌과 산촌), 1997년(어촌) 및 1998년(면 소재지)의 농촌마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동일 지역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의 변화를 연구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의 연구를 위한 자료도 일반농촌(1999년)과 근교농촌(2000년)의 2차조사 결과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II. 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⁵⁾의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1960년 이후 지속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도시인구가 1960년에 총인구의 28.0%에서 1990년에 74.4%로 급증하였다(김태현, 1996). 1990년대에도 이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79.7%까지 높아졌으며, 농촌인구는 같은 기간에 74.4%에서 20.3%(2000)로 낮아졌다(통계청, 2000a). 이러한 도농간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지역별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이동은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한 인구 중에서 선별적으로 일어나며, 성별로도 이동시기와 이동량의 차이가 있으므로(권태환·김두섭, 1990: 167-169), 많은 인구이동이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인구의 편중현상이 심화된다. 특히,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인구규모가 극소화되는 농촌에서 연령, 성 등에서 동일 특성을 가진 인구의 지속적인 전출은 잔여 인구의 구조를 왜곡시킨다.

1960년 이후 우리 나라 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뚜렷하였다. 물론 출산수준의 감소와 사망율의 저하에 따른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농촌의 경우 도시로의 인구전출이 지속되면서 젊은 연령층과 영유아의 인구구성비가 낮고 노인연령층이 두껍게 된다. 0-14세 인구가 1970년에 총인구의 45.1%에 도달한 이래 출산수준의 감소와 20-30대 인구의 전출에 따른 농촌 출생아수의 감소, 그리고 10대의 교육을 위한 전출로 구성비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25년후인 1995년에 20.4%로 되었으며 앞으로 20% 밑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통계청, 1972 및 1997).

생산연령계층인 15-64세의 경우 1970년의 50.8%를 저점으로 그후 1990년에

5)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을 편의상 행정구역상의 '시부'와 '군부'로 분류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와 인근 군을 합친 광역시 또는 통합시가 발족되면서 기존의 '시부'와 '군부'를 '동부'와 '읍·면부'로 대체하여 도시와 농촌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인용한 전국자료의 도시와 농촌은 행정구역상의 '동부'와 '읍·면부'에 해당된다.

67% 수준으로 상승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인구인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구성비는 1970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최근으로 올 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0-14세 인구의 구성비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생산연령계층의 인구구성비가 정체(1990년대)되었으며,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비대하였던 생산연령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김태현, 1996년 참조).

농촌지역 인구구조의 특징은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극소하거나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 두 연구지역(일반농촌 및 근교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1〉 참조). 20세 미만의 어린 연령층은 전체 인구의 16.5%(1999 일반농촌)에서 26.6%(1996 근교농촌)로, 전국인구(1995)의 31.6%보다 낮았으며, 60세 이상인구는 19.6%(1996 근교농촌)에서 46.3%(1999 일반농촌)으로 전국인구(1995) 9.3%의 2~5배나 되었다.

일반농촌과 근교농촌 모두 지난 4년 동안 연령별 구성비의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전국인구의 경우 1990년대 상반기에 20대까지 구성비가 감소하고 30대부터 증가하였으나 연구지역의 인구구성비는 두 지역 공히 30대까지 감소하고 40대이후에는 증가하였다. 전국 인구구조와 연구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주 원인은 전국인구에서는 출산율의 감소이고, 연구지역에서는 출산율의 감소 외에 연령별 인구이동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산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전국인구의 연령구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비가 높은 연령층이 유소년층에서 청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연구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성인 젊은 연령층 인구의 전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년층(40대) 이전과 이후의 구성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구성비 변화에 대한 차이를 일반농촌과 근교농촌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0대 이전과 40대 이후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패턴은 같지만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정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소하는 연령계층인 30대 이전과 증가하는 연령계층인 40대 이후의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일반농촌에서 4년간 각각 7.9% 포인트의 감소와 증가로 나타난 반면에 근교농촌에서는 각각 6.3% 포인트의 감소와 증가가 있었다. 이것은 일반농촌의 노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연령계층을 좀더 세분할 경우 일반농촌의 인구이동과 노령화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중간 연령계층인 20-39세와 40-59세에서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비교하면, 일반농촌에서 20-39세에서는 인구구성비가 4년 동안에 12.4%에서 7.5%로 약 40%나 감소한 반면에 40-59세에서는 약 3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근교농촌에서는 같은 기간에 20-39세에서 29.5%에서 26.7%로 약 10% 정도만 감소한 반면에 40-59세에서는 24.3%에서 28.7%로 2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두 연령계층에서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간에 크게 차이나는 것은 순수농촌으로 갈수록 젊은 연령계층 중심의 전출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입은 극히 저조한 반면에 근교농촌의 경우 20-39세의 인구가 전출하지만 도시의 안정세대인 40-59세 인구가 소규모 사업장의 전입이나 저렴하지만 쾌적한 생활공간을 찾아 이주하므로 이 연령층의 인구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청·장년 층의 인구증가는 IMF후의 귀향⁶⁾이나 도시에서 생활경비 절약을 위한 이주(문옥표 외, 1993; 김태현, 1996 참조)라

〈표 1〉 연구지역 인구의 연령(10세)별 인구구조의 변화 비교

연령	일반농촌		근교농촌		전국인구	
	1995	1999	1996	2000	1990	1995
0-9	5.5	4.5	9.7	9.6	16.5	14.6
10-19	14.0	12.0	16.9	13.5	19.5	17.0
20-29	4.2	3.2	14.4	13.5	20.1	19.0
30-39	8.2	4.3	15.1	13.2	17.1	18.8
40-49	10.2	13.8	12.5	14.5	10.9	12.4
50-59	19.7	15.9	11.8	14.2	8.4	8.9
60-69	21.1	24.6	8.6	10.5	4.7	5.7
70+	17.2	21.7	11.0	11.1	2.9	3.6
합계	100.0 (402)	100.0 (442)	100.0 (767)	100.0 (773)	100.0	100.0

주 : ()내의 숫자는 연구지역에서 연도별 조사인구임.

자료: 1) 일반농촌(1995, 1999) 및 근교농촌(1996, 2000) 조사결과.

2) 1990 및 1995 인구주택총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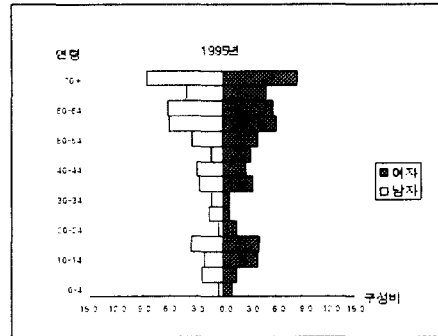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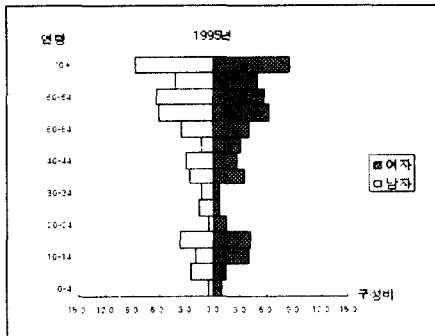
6) IMF후에 귀향하는 지역은 주로 근교농촌이며, 일반농촌으로 귀향하는 경우는 극소하다(〈표 5 참조〉).

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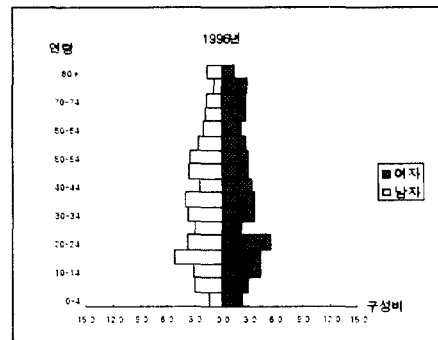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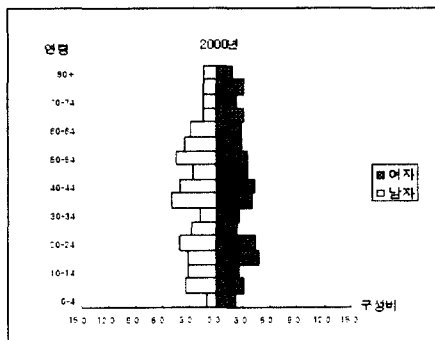
위의 인구현상의 변화를 <그림 1>의 인구피라미트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농촌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젊은 연령층의 전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공동화와 새로운 전입인구의 극소는 기존인구의 노령화와 사망에 의한 소멸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체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근교농촌의 경우에는 노령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일반농촌과 비교하여 젊은 연령층 인구가 두터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증가하는 연령층인 60대 이후는 기존 토박이

<그림 1> 연구지역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비교

가. 일반농촌 (1995 및 1999)



나. 근교농촌 (1996 및 2000)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장년층의 변화는 진출과 전입의 교차에 따라 새로운 사회로 이전하기 전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부양인구의 변화

연령별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양인구비와 노령화지수가 있다. 일반농촌의 경우 유소년인구(0-14세)의 인구구성비가 1995년의 11.4%에서 1999년에는 8.8%로 낮아진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던 수준(26.4%)에서 4년후에는 3분의 1(33.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므로, 유소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감소(3.1 포인트)하는 것보다 노년부양비의 증가폭(15.0 포인트)이 크게 앞서므로 총부양비는 60.7에서 72.6으로 11.9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노령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 구성비)/(0-14세 인구 구성비))×100)는 231.6에서 376.9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의 2.3배에서 3.8배로 증가하였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가속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근교농촌의 경우도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농촌의 연

〈표 2〉 연구지역 인구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변화 비교

연령 및 지표	일반농촌		근교농촌	
	1995	1999	1996	2000
0-14	11.4	8.8	17.1	15.2
15-64	62.2	57.9	67.5	69.1
65+	26.4	33.3	15.4	15.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총부양비	60.7	72.6	48.1	44.7
유소년부양비	18.3	15.2	25.3	21.9
노년부양비	42.4	57.4	22.8	22.8
노령화지수	231.6	376.9	90.1	104.3

자료: 일반농촌(1995, 1999) 및 근교농촌(1996, 2000) 조사결과.

령구조 변화 처럼 그렇게 크지않았다. 지난 4년간 총부양비는 48.1에서 44.7로 3.4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유소년부양비가 25.3에서 21.9로 3.4포인트 감소한 영향이며, 노년부양비는 동일하였다. 노령화지수는 90.1에서 104.3으로 14.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록, 영유아인구의 감소와 노년인구의 증가로 일반농촌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연령(15-64세)인구의 구성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총부양비는 오히려 48.1에서 44.7로 3.4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것은 원주민의 노령화와 출산수준의 감소로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지만 근교농촌의 지역적 위치로 생산연령계층의 새로운 진입인구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성별 인구구조의 변화

연령구조와 함께 인구구조의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가 성비이다. 성비는 출생시 105를 전후한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서 40 또는 50세 전후에서 100정도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급속히 떨어진다. 그러나 농촌인구에서는 위와 같은 성비의 구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3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다. 즉, 10세미만, 20대, 그리고 60대 또는 70대에서 주변의 연령계층과 비교할 때 성비가 극대로 나타난다(김일철 외, 1988: 66; 김태현, 1993: 79-81).

10세 미만에서 성비가 높은 것은 남아선호가 강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교육열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 남아 교육을 위한 도시진출이 많은 10대에 성비가 낮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비를 기록한다. 20대나 30대에서 성비가 극히 높은 것은 젊은 연령층의 도시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령층으로 도시에서 서비스업이나 단순업종에 취업이 수월한 여자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은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남자의 취업을 위한 진출이 증가하면서 40대이후의 성비가 낮아진다. 그리고, 60대 노인의 성비가 다시 상승한다. 이 연령층의 인구는 농촌사회의 원주민으로 자녀들 대부분이 도시로 진출한 후 노부모만 잔존하는 세대이다. 이때는 도시로 진출한 자녀들과 재결합할 때이며,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의 경우가 도시에서의 역할이 다양하므로 이주의 기회가 많게 된다.

위의 일반적인 연령별 성비의 패턴을 연구지역중 일반농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0-9세, 20-39세 및 60-69세(또는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5년과 1999년에서 동일하였으며(〈표 3〉 및 〈그림 2〉 참조), 1999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0-9세, 20-29세, 30-39세, 그리고 60-69세의 성비가 더 높아졌다. 30대 이전 연령층 인구구성비가 극히 작아지는 과정에서도 연령별 성비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인의 성비가 증가하는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0대로 낮아지는 이유를 가족관계의 변화와 출산수준의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방문회수는 감소하는 대신 연락회수가 증가(〈표 14〉 참조)하고, 출산수준이 1980년대 중반이후 대체수준이하로 낮아지고 공사립의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도시에서 할머니의 역할이 줄면서 도시로 진출하는 할머니의 연령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의 급속한 출산수준의 감소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호자가 필요한 초등학교이하 자녀수의 빠른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통계청, 1996 참조).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복지차원에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1990년대 후반에 집중⁷⁾되면서 농촌 노부모가 도시의 자녀와 재결합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도시의 주택형태가 1990년대 후반부터 과거의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변하면서(통계청, 2000a) 과거에 집 지키기와 집안일을 도왔던 노인들의 역할이 감소한 것도 할머니들이 도시의 자녀들과 재결합이 줄어든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교농촌에서는 위의 일반적인 패턴이 뚜렷하지 않았다. 1996년에 10-19세, 30-39세, 50-5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비가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20-29세와 50-59세의 성비가 더 높아졌다. 즉, 20대와 30대의 성비가 높은 것은 일반농촌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0-9세와 60-69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50-59세의 성비가 높았다. 0-9세의 성비가 낮은 것은 남아에 대한 도시교육이 지리적으로 수월하여 여아보다 많이 이주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50-59세 성비가 높아진 것은 1996년의 45-49세와 50-54세의 성비가 높았던 코호트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김태현, 정현석, 2000). 이 연령층은 중소기업의 전입이나 쾌적한 생활공간을 갖기 위한 도시인의 전입이 많은 연령층이며, IMF를 겪는 동안 도시로 진출이 곤란하여 농촌에 잔류한 연령계층이다. 또한, 도시 자녀와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60세 이후의 연령계

7) 아동보육시설수와 보육아동수는 1994년에 각각 약 7천개소와 약 22만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약 1만5천개소와 약 52만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8: 399).

층에서 성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도시로 진출한 자녀의 출산을 감소와 도시에서 할머니들의 역할 감소, 출퇴근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으로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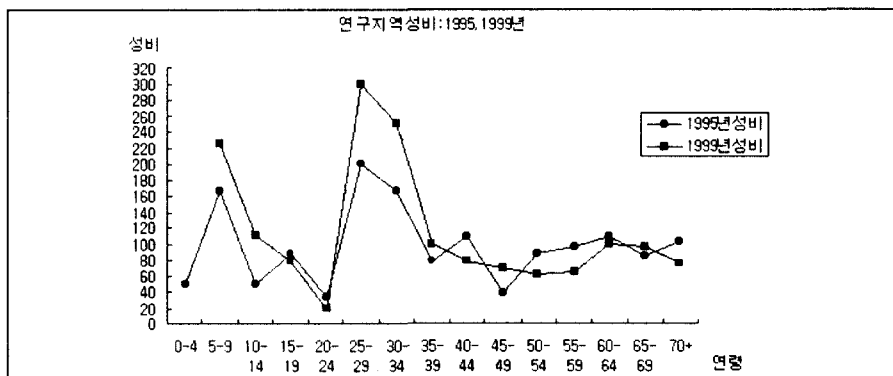
〈표 3〉 연구지역 인구의 연령(10세)별 성비의 변화 비교

연 령	일반농촌		근교농촌	
	1995	1999	1996	2000
0-9	120.0	400.0	85.0	85.0
10-19	69.7	89.3	97.0	85.7
20-29	88.9	100.0	87.9	103.9
30-39	94.1	137.5	107.1	100.0
40-49	70.8	74.3	95.9	83.6
50-59	92.7	62.8	106.8	124.5
60-69	97.7	98.2	83.3	72.3
70+	102.9	74.5	58.5	59.3
합 계	90.5	88.1	90.8	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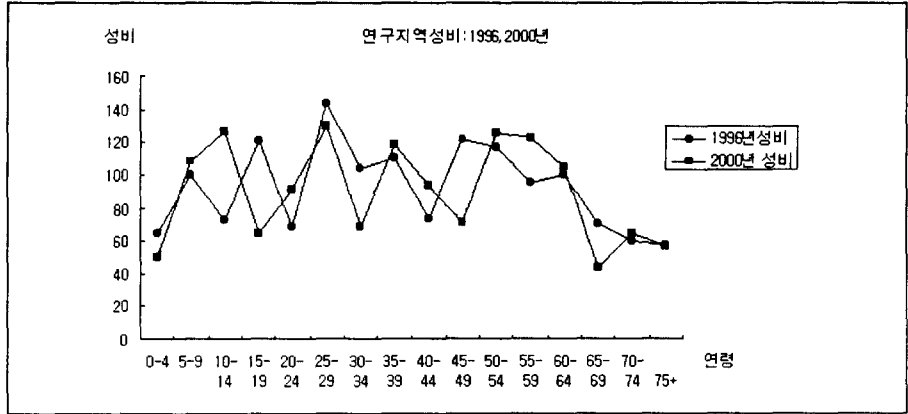
자료: 일반농촌(1995, 1999) 및 근교농촌(1996, 2000) 조사결과.

〈그림 2〉 연구지역 성비 변화의 비교

가. 일반농촌 (1995 및 1999)



나. 근교농촌 (1996 및 2000)



4. 인구이동의 영향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을 간추려 보면 우선 취업과 관련한 경제적 요인과 진학 또는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교육적 요인, 그리고 결혼이나 가족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적 요인으로 대표될 수 있다(경제기획원 및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이러한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주로 도시화,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취업 또는 진학을 목적으로 이동하며 시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인구이동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김일철 외, 1988: 76; 김태현, 1993: 87).

연구지역 주민의 출생지별 통계(〈표 4〉 참조)를 보면, 전체 주민의 약 50%가 현재 거주지에서 출생하였다. 농촌지역(군지역) 출신이 80~90%로 도시에서의 전입은 극히 제한되었으며, 도시로의 전출이 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인구이동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촌보다 근교농촌에서 도농간의 이동이 보다 원활하였으며, 근교농촌에서 도시지역 출신의 구성비가 17.7%로 일반농촌(11.7%)에 비하여 약 1.5배나 되었다. 도시의 주거여건의 악화와 교통편의,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의 이전 등으로 인접 도시주민이 근교농촌으로 이주하였으며, 노령의 원주민 사망과 출생아수의 감소도 근교농촌의 도시지역 출신 주민의 구성비를 높였다고 하겠다.

현재 거주지에서 출생한 주민의 구성비가 일반농촌(48.3%)에서 근교농촌(56.0%)

〈표 4〉 연구지역의 출생지별 인구의 변화 비교

출생지	일반농촌(1999)	근교농촌(2000)
현재 거주리 ¹⁾	214 (48.3)	433 (56.0)
같은 군 ²⁾	78 (17.7)	104 (13.5)
군 지역 ³⁾	98 (22.2)	97 (12.5)
시 지역 ⁴⁾	52 (11.7)	137 (17.7)
기 타 ⁵⁾	0 (0.0)	2 (0.3)
합 계	442(100.0)	773(100.0)

주: 1) 조사지역의 리임.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보은군 또는 청원군). 단, 현재 거주리(조사지역) 제외.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보은군 또는 청원군)외의 다른 군.

4) 전국 도시 지역.

5) 외국(북한 포함) 및 미상을 포함.

자료: 일반농촌(1999) 및 근교농촌(2000) 조사결과.

보다 낮은 것은 일반농촌에서 출생한 젊은 연령층의 인구는 대부분 도시로 진출하였으므로 일반농촌 인구중 주로 현 거주지에서 출생한 유소년인구를 포함한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극소하였고, 주변 군지역에서 혼인으로 전입한 노인(여자)인구의 구성비가 높은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주로 인근군인 '군지역' 까지 출생지역을 합하면 일반농촌에서 농촌출신 인구의 구성비가 높아진다.

주로 가구주인 응답자⁸⁾의 전입시기(〈표 5〉 참조)를 기준으로 보면 거주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1979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를 원주민 가구라고 한다면, 일반농촌의 원주민 가구가 전체의 93.1%로 근교농촌(66.0%)보다 훨씬 높았다.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전입가구는 일반농촌에서 전체의 6.8%에 불과하였으며, 근교농촌(34.0%)의 5분의 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근교농촌에서 외지에서 전입한 가구가 최근에 더욱 증가(1995년 이후 전입가구의 구성비: 11.2%)한 반면에, 일반농촌에서 외지인의 가구가 극소하였으며, IMF이후의 영농목적 귀농의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8) 일반농촌 응답자의 83.4%와 근교농촌 응답자의 71.6%가 가구주였으며, 가구주의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응답자의 구성비는 일반농촌과 근교농촌에서 각각 97.7%와 92.4%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5〉 연구지역 응답자의 전입시기의 비교

전입시기	일반농촌(1999)	근교농촌(2000)
출생부터	102 (58.3)	91 (46.2)
~ 1979	61 (34.8)	39 (19.8)
1980 ~ 1994	9 (5.1)	45 (22.8)
1995 ~	3 (1.7)	22 (11.2)
합 계	175(100.0)	197(100.0)

주: 1) 응답자는 가구주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구주 면담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주로 가구주의 배우자)로 하였음.

2) 근교농촌의 미상 3명을 제외.

자료: 일반농촌(1999) 및 근교농촌(2000) 조사결과.

이동 인구는 남·녀 모두의 경우 15-29세 사이의 연령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간에 서로 다른 연령별 선택성을 보여 왔다(권태환, 1992: 43-46). 충북의 경우를 예로 들때, 남자의 경우 1970년대 전반까지는 15-19세에서 이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활발한 이동자의 연령층이 25-29세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1970년대에는 15-1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으나, 197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연령층이 20-24세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1980년대 후반에는 20-24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태현·이창송, 1995: 107). 이러한 성·연령별 인구 이동의 차이는 농촌에서 결혼 적령기 성비 불균형 문제, 노인 인구의 과다 문제, 생산 가능 연령의 부족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지역에서 전입과 전출자수의 차이는 물론, 연령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표 6〉 참조). 일반농촌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출(91명)이 전입(26명)의 3.5배였으며, 근교농촌의 경우는 전출입 모두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전출이 전입의 2.4배로 그 차이도 컸으나 일반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역조사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가구 전체가 전출하였을 경우를 제외⁹⁾하였으므로 실제 전출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령별 차이는 더욱 분명하였다. 일반농촌에서 전입자수는 연령별로

9) 주민등록이동을 근거로 가구전체의 전출여부와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자료와 실 거주자료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구전체 전출에 의한 전출자를 제외하였다. 다만, 과거조사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전출자수는 10세에서 39세까지의 청소년층에 집중(전체의 94.5%)되었다. 그러나, 근교농촌의 경우는 전입자수에서 출생을 포함하고 있는 0-9세와 청장년층인 20-59세의 전입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도시로의 출퇴근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이동 등의 이유로 젊은 연령층의 전입도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출의 경우에서 연령구조가 일반농촌의 경우와 유사하나 10대의 전출이 적는데 이것은 도시로의 통학이 가능하므로 진학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극소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근교농촌 인구의 연령별 구성이 일반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젊은 연령층 인구의 전출이 많아도 이 연령층 인구의 전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주민 가구는 노령화되고, 새로운 전입가구가 점차 근교농촌 사회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표 6〉 연구지역의 지난 5년간 성 및 연령(10세)별 전출입자수의 비교, 2000

연 령	일반농촌		근교농촌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0-9	3 (11.5)	0 (0.0)	20 (37.7)	0 (0.0)
10-19	1 (3.8)	18 (19.8)	1 (1.9)	7 (5.5)
20-29	5 (19.2)	53 (58.2)	10 (18.9)	84 (66.1)
30-39	4 (15.4)	15 (16.5)	6 (11.3)	28 (22.0)
40-49	3 (11.5)	2 (2.2)	6 (11.3)	3 (2.4)
50-59	3 (11.5)	2 (2.2)	5 (9.4)	4 (3.1)
60-69	4 (15.4)	1 (1.1)	2 (3.8)	1 (0.8)
70+	3 (11.5)	0 (0.0)	3 (5.7)	0 (0.0)
합 계	26(100.0)	91(100.0)	53(100.0)	127(100.0)

주: 1) 출생을 전입에 포함하였으나, 사망을 전출에 포함하지 않았음.

2) ()내의 숫자는 구성비임.

3) 가구전체의 전출인 경우 제외하였음.

자료: 일반농촌의 보완조사(2000) 및 근교농촌조사(2000)결과.

가구명부를 대조하면서 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 이용된 과거의 조사자료(1995년 일반농촌과 1996년 근교농촌 조사자료)가 폐기되었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대도시와 농촌(소도시 포함)간의 인구이동은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이동을 결정하는 비경제적요인의 중요성에 따라 그 방향이 변화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농촌에서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촌인구가 증가하였으며(Fugitt, 1985), 1980년대에는 농촌의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제조업분야의 직업이 감소하면서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의 전출이 증가하였다(Frey, 1995).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도시의 경제여건이 바뀌면서 인구이동방향이 바뀌었다. 이 때는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이동이 훨씬 활발해졌으며, 대도시의 주거비용이 높으므로 주변 농촌에 거주하면서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Fulton, et al., 1997).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1960년대 이래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이후 대도시의 생활여건(주거, 교통환경 등)의 변화로 대도시 근교로 이주하고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젊은 연령층의 이동이 증가하였다(문옥표 외, 1993).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근교농촌에 국한되었으며, 일반농촌으로의 전입은 매우 적었다. IMF 이후 도시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나 실직자의 일부가 농촌으로 회귀하였으나(농림부, 1999 참조) 그 규모가 극히 작았기 때문에 농촌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Ⅲ. 가족유형의 변화와 부모·자녀관계

1. 가족유형의 변화와 노령화

농촌인구의 전출은 선별적으로 일어난다. 20대와 30대에서 주로 이동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동율이 높다. 또한 10대와 20대에는 개별이동이 주를 이루고 30대 이후에는 가족단위 이동이 중심이 된다. 젊은 연령층의 전출로 농촌사회에서는 유소년(0-4세)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며,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가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때 노인가족은 노인 단독가구를 이루고,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가족이 빠르게 증가한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1997)에 의하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도시에서 9.6%, 농촌에서 23.1%로 농촌의 구성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구성비가 1970년에 각각 6.6%와 4.6%로 도시에서 높았던 것(통계청, 1999: 116-117)을 감안하면 그 동안 자녀가 전출하고 노부부만으로 이루어

진 가구가 증가한 것이므로, 농촌가족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가족유형은 2세대 이하의 핵가족이 중심('95년 도시: 89.5%, 농촌: 84.6%)을 이루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빈둥우리 단계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별로 해체과정에 접어든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연령층 인구의 도시전출로 농촌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농촌가족의 수는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농촌사회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게 된다(김태현, 1996 참조).

우리 나라의 전통가족은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체계는 결혼한 장남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세대수별 친족가구의 구성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였다. 1960년대 이후 가족 유형의 변화는 1~2세대 가족 및 핵가족 비율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족 및 확대가족의 감소로 요약된다(권태환 외, 1995: 360). 1975년에 농촌에서 3세대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5.9%였으며, 도시의 경우는 14.3%에 불과하였다. 도시에서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는 각각 4.5%와 8.3%였으며, 농촌의 경우(각각 3.9%와 5.2%)보다 높았다. 이것은 도시에서 높은 교육기회와 더 많은 비농 취업기회를 위하여 개별이동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현·정현석, 2000 참조). 1975년 이후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3세대 이상 가구의 수는 감소하고, 일인 가구나 1세대 가구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5년에 농촌에서 3세대 이상 가구의 구성비가 1975년의 반에도 못미치는 12.7%까지 감소하였으며,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의 구성비는 각각 15.6%와 19.8%로 4배 정도씩 증가하였다(통계청, 1977 및 1997). 비록 도시의 가족변화가 농촌의 가족변화와 유사하지만 그 변화 속도는 농촌에서 더욱 빨랐다. 농촌 가족의 변화가 빠른 이유는 젊은 연령층의 전출과 잔류 원주민의 노령화라고 할 수 있다.

세대별 가족유형의 변화로 농촌사회의 가족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세대별 가족구성은 과거 2세대와 3세대 중심에서 2세대 중심의 가족유형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1세대 가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세대 가족과 함께 대표적인 가족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촌에서 1세대가족의 구성비는 3세대 이상 가족의 구성비보다 높아졌으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1992 및 1997 참조). 이러한 농촌의 가족유형변화는 농촌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농촌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지역인 근교농촌에서는 2000년의

대표적인 가족유형으로 2세대 가족(52.0%)이면서 3세대 가족도 구성비가 29.0%로 여전히 중심가족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농촌에서는 1999년에 대표적인 가족유형이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전체 가구의 45.3%가 1세대 가구였으며, 2세대 가구는 28.5%로 1세대 가구보다 적었으며, 3세대 이상 가구는 극소(7.8%)하였다. 또한, 노인 중심의 단독 가구도 전체의 18.4%로 근교농촌(6.0%)의 세배나 되었다.

일반농촌과 근교농촌의 가족유형별 가구구성비의 변화를 비교하면 지역간의 가족변화와 노령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년간의 가족유형별 가구구성비는 일반농촌과 근교농촌 모두에서 단독가구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3세대 이상가구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2세대 가구의 구성비는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1세대 가구의 경우 일반농촌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근교농촌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녀의 전출로 3세대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감소하지만 이미 노령화가 심화되어 노인중심의 1세대 가구가 중심유형인 일반농촌에서 노인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전출할 경우 노인 단독가구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3세대 가구의 구성비가 극히 낮아지면서 앞으로 2세대가구의 구성비도 정체 내지 감소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일반농촌의 대표적인 가족유형은 현재 1세대와 2세대 중심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단독가구도 일반농촌의 대표적인 가족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단독가구와 1세대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일반농촌에서 확인하였으나 근교농촌에서는 오히려 3세대 이상의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대표적인 가족 유형으로 남아 있다. 연구지역의 일반농촌에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와 노부부 중심의 1세대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근교농촌에서는 오히려 3세대 이상의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대표적인 가족 유형으로 남아 있다. 아시아 지역 노인들의 4분의 3정도는 성장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Martin, 1989),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는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다(Hirosima, 1987; Kim and Choe, 1992; Martin, 1991 참조).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가 동거하거나 별거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주거비가 높을수록, 노부모의 건강이 나쁠수록 동거율이 높으며, 노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동거보다는 사생활을 가질 수 있는 별거율이 높아진다(DaVanzo and Chan, 1994: 109-111). 우리 나라의 경우 사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노부모들이 자녀들과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와 건강상의 문제로 우리 나라 노인의

〈표 7〉 연구지역의 가족유형별 가구구성비의 변화 비교

가구규모	일반농촌		근교농촌	
	1995	1999	1996	2000
단독 가구	14.0	18.4	3.8	6.0
1세대 가족	47.3	45.3	10.9	13.0
2세대 가족	26.0	28.5	50.5	52.0
3세대 이상 가족	12.7	7.8	34.8	29.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반농촌(1995, 1999) 및 근교농촌(1996, 2000) 조사결과.

86.0%가 자녀의 부양을 원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249-252 및 261-280).

우리나라 농촌 주민의 의식이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농촌에서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도시로 진출하면서 부모세대만이 농촌에 잔류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가족의 형성 없이 부모의 노령화로 농촌가족의 유형이 빠르게 바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교농촌의 경우에는 도시로의 통근·통학이 가능하고, 도시의 소규모 사업체 이전 등으로 노부모와 자녀의 가족이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가구 구성비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Kim, 1999 및 2000 참조). 이것은 도시의 비싼 주거비와 자녀 양육 등의 편의 때문에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세대와 동거하는 경우(DaVanzo and Chan, 1994 참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근교농촌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연구지역의 세대별 가구 구성비의 변화와 함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의 변화도 컸다. 우선, 지난 4년간 일반농촌과 근교농촌의 평균가구원수가 각각 0.2명과 0.3명이 감소하였으며, 5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1인 가구(일반 및 근교농촌)와 2인 가구(근교농촌)의 증가가 뚜렷하였다(〈표 8〉 참조). 일반농촌의 대표적인 가구의 규모는 2인가구이며 1995년에 1인가구와 3인가구의 수가 비슷하였으나 1999년에는 1인가구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근교농촌에서는 1996년에 5인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2000년에는 4인가구가 가장 많아져서 가구의 대표규모는 5인가구와 4인가구에서 4인가구와 3인가구로 낮아졌다.

지역별, 가족유형별로 노인인구의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 농촌에서 1인 가구와 1

〈표 8〉 연구지역의 가구규모별 가구 구성비의 변화 비교

가구규모	일반농촌		근교농촌	
	1995	1999	1996	2000
1인 가구	14.0	18.4	3.8	6.0
2인 가구	49.3	49.2	12.5	15.5
3인 가구	13.3	14.5	19.0	22.0
4인 가구	6.7	8.4	21.2	24.0
5인 가구	12.0	6.1	25.0	16.0
6인 이상 가구	4.7	3.3	18.5	16.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가구원수(명)	2.7	2.5	4.2	3.9

자료: 일반농촌(1995, 1999) 및 근교농촌(1996, 2000) 조사결과.

세대가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노령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는 1999년 일반농촌의 단독가구 33가구중 25가구가 65세 이상의 노인 혼자 사는 경우이고, 1세대 가구에 살고있는 총 가구원 162명중 74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표 9〉 참조). 노인을 중심으로 3세대가 함께 사는 대표적인 확대가족의 유형인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총 가구원수 78명중 19명만이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이것은 연령이 낮은 다음 세대의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근교농촌에서는 전체 인구의 91.7%가 2세대 이상의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가구나 1세대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의 8.3%에 불과하였다. 또한, 단독가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단독가구는 전체 12가구중 6가구로 일반농촌에 비하여 단독가구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도 낮았다.

연구지역에서 노인만의 가구와 일반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10〉과 같다. 일반농촌에서는 1999년에 65세이상 전체 노인인구(180명) 중 89명(49.4%)이 노인 혼자살거나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살고 있다.¹⁰⁾

10)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65세이상 노인인 경우만 포함하였으며, 부부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면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표 9〉 가족유형별 가구수 및 연령별 인구: 근교농촌(2000) 및 일반농촌(1999)

가족유형	일반농촌(1999)					근교농촌(2000)				
	가구수	인 구				가구수	인 구			
		0-14	15-64	65+	계		0-14	15-64	65+	계
단독가구	33 (18.4)	0	8	25	33 (7.5)	12 (6.0)	0	6	6	12 (1.6)
1세대 가구	81 (45.3)	0	88	74	162 (36.7)	26 (13.0)	0	27	25	52 (6.7)
2세대 가구	51 (28.5)	22	118	29	169 (38.2)	104 (52.0)	49	300	37	386 (49.9)
3세대 이상	14 (7.8)	17	42	19	78 (17.6)	58 (29.0)	68	201	54	323 (41.8)
합 계	179(100.0)	39	256	147	442(100.0)	200(100.0)	117	534	122	773(100.0)

자료: 일반농촌(1999) 및 근교농촌(2000) 조사결과.

그러나, 근교농촌에서는 2000년에 노인만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전체(112명)의 25%에 불과한 28명이었으며, 84명은 65세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근교농촌의 경우 총 200가구의 조사대상중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17가구(8.5%)이지만, 일반농촌의 경우는 총 179가구중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의 31.8%(57가구)로 근교농촌의 약 4배에 달하였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노인의 사망과 함께 가구 자체의 해체를 맞게 되는 가구가 일반농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9〉 및 〈표 10〉 참조).

우리 나라에서 노부모와 결혼한 자녀의 동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가족내의 노부모 부양은 여전히 강하며, 특히 장남이 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Lee and Palloni, 1992: 69-70; 정경희 등, 1998: 251).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가까이 살면서 가사일 돕기, 자녀 돌보기, 정신적 위로, 금전적 지원 등 세대간에 서로 도우면서 평생을 살아간다(Easterlin and Crimmins, 1988; Bumpass, 1990 참조). 그러나, 일반농촌의 경우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극히 낮고, 질병 등 자력으로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 대부분이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으며(새마을연구소, 1999 및 2000), 외지로 진출한 자녀들과의 관계(방문 및 연락정도와 생활비 보조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2〉 참조).

〈표 10〉 65세 이상 노인이 살고있는 가구형태별 가구수와 성별 노인인구,
근교농촌(2000) 및 일반농촌(1999)

가구유형	일반농촌(1999)			근교농촌(2000)				
	가구수	인 구		가구수	인 구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노인만의 가구(1)	57 (65.5)	35	54	89 (49.4)	17 (20.5)	11	17	28 (25.0)
노인 단독가구(2)	25 (28.7)	3	22	25	6 (7.2)	0	6	6
노인 부부가구(3)	32 (36.8)	32	32	64	11 (13.3)	11	11	22
일반가구(4)	30 (34.5)	44	47	91 (50.6)	66 (79.5)	32	52	84 (75.0)
합 계	87(100.0)	79	101	180(100.0)	83(100.0)	43	69	112(100.0)

주 : 1)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및 기타 노인가구를 포함.

2) 65세 이상 노인 혼자 사는 가구.

3) 65세 이상인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4) 65세 이상 노인이 젊은(65세 미만) 가구원과 함께 사는 가구.

자료: 일반농촌(1999) 및 근교농촌(2000) 조사결과.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노인들이 독립하여 사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조와 의료보호를 포함하여 노인들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며(Michael, et al., 1980; Kramarow, 1995), 노인들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찾게 되었다(Burch and Matthews, 1987). 또한, 출산수준이 낮아지면서 늙어서 자신을 돌봐줄 자녀수가 감소하였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다(Kramaraw, 1995: 349-350). 그러나, 우리 농촌에 부모세대가 잔류하고 있는 것은 소득이 늘었거나 사생활을 갖기를 원한다기 보다는 최근 자녀수의 감소와 함께 노인들이 도시에서 손자녀 돌보는 역할이 감소하였고, 도시의 주택이 아파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집보거나 집안 살림과 같은 역할의 감소로 할머니들의 농촌 잔류나 귀향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2. 부모와 전출자녀의 관계

인구의 이동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가구단위의 이동으로 가족 전부가 이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 단위의 이동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형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단위의 이동이 먼저 나타나고, 이들의 정착이 이루어진 후 가족이 결합하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농촌의 전통사회에서는 원주민들의 경우 자녀들의 도시진출을 허락하고 노부모 중심의 가구는 그대로 농촌에 잔류하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원(주로 전출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농촌 마을과 도시와의 교류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잔류가구원의 추가적인 도시진출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계기도 된다(김태현, 1993: 95). 연구지역의 경우도 자녀들의 전출과 부모세대의 잔류현상이 분명하였다. 일반농촌의 경우 가구주의 자녀중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출자녀수는 총 605명(연령미상 2명 포함)으로 가구당 평균 3.38명이었으며, 근교농촌의 경우에는 총 354명으로 가구당 평균 1.77명이었다(〈표 11〉 참조). 근교농촌의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총출생아수도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도시와 인접하므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전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농촌보다 전출자녀수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전출자녀수의 분포는 두 연구지역 모두에서 가구주 연령 20-49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농촌 출신 전출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모세대인 원주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11〉 연구지역의 가구주의 전출 자녀수 비교, 2000

가구주 연령	일반농촌	근교농촌
-19	13 (2.2)	10 (2.8)
20-29	120 (19.9)	95 (26.9)
30-39	239 (39.6)	129 (36.4)
40-49	176 (29.2)	83 (23.4)
50+	55 (9.1)	37 (10.5)
합 계	603(100.0)	354(100.0)

주: '일반농촌'에서 연령미상 이혼자녀 2명 제외.

자료: 일반농촌의 보완조사(2000) 및 근교농촌조사(2000) 결과.

이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부모와 자녀간의 왕래와 연락 정도, 그리고, 상호 생활비의 지원을 포함하였다. 농촌에 잔류하고 있는 부모세대와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세대간의 근접정도로 가족관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 주로 노령의 부모세대가 농촌에서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Antonucci, 1990 참조).

부모와 전출자녀간에는 거의 모두가 서로 왕래나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전혀 없는 경우는 극소(2-3%)하였다(〈표 12〉 참조). 그러나 왕래나 연락의 정도에서는 일반농촌과 근교농촌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왕래는 일반농촌에서 '세달에 한번 정도' 이나 '일년에 한번 정도' 에 집중(74.8%)하였으나, 근교농촌의 경우에는 '세달에 한번 정도' (31.6%)가 가장 높았으나 '한달 두 번 이상' (27.7%)도 높았다. 명절이나 중요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인 '세달 한번 정도' 이하를 제외하고, 평소의 밀착정도가 인정되는 '한달 한번 정도' 이상의 왕래의 경우는 일반농촌에서 21.9%로 낮은 반면에 근교농촌에서는 45.8%나 되었다. 이것은 부모 자녀간의 지리적 거리에 차이가 있고, 근교농촌에서 부모와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촌자녀의 이촌시기¹¹⁾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부모 의존경향이 근교농촌의 가족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실시된 노인생활실태조사(정경희 외, 1998: 120-123)에서도 독신노인의 경우 별거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경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홀로된 부모에 대한 관심이 낮은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일반농촌의 노인 단독가구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근교농촌에 비하여 부모, 자녀간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신의 발달은 부모, 자녀간의 연락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준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도, 부모와 자녀의 의식에 따라 전화에 의한 연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부분 '한달에 한두번' 이상의 연락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의 연락은 일반농촌(38.8%)보다 근교농촌(61.3%)에서 높았다. 지리적 거리에 따른 경비의 차이와 이촌자녀의 이촌시기에 따라 연락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노인들이 재산보유 필요성으로 '자식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 재

11) 이촌시기가 5년미만인 이촌자녀수는 일반농촌에서 79명, 근교농촌에서 110명이며 지역별 이촌자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0%와 31.1%로 근교농촌에서 두배가 넘었다.

산이 있어야 한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재산상속을 마친 경우 보다 아직 상속하지 않은 경우에 별거 자녀들과의 연락이나 접촉이 더 빈번하였다(정경희 외, 1998: 123-124 및 258-259). 이 연구의 근교농촌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왕래나 연락이 일반농촌에 비하여 더 빈번한 것도 근교농촌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젊고, 아직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왕래정도와 연락회수를 5년전과 비교하였다(〈표 13〉 참조). 두 연구지역에서 부모, 자녀간의 왕래나 연락정도가 5년전과 비슷하였으며, 왕래정도는 감소한 반면에 연락회수는 늘었다.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왕래하는 것이 상호 친밀성이 높고, 전화연락은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면 연구지역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연구지역의 부모와 전출 자녀간의 왕래 및 연락정도, 2000

구 분	일반농촌	근교농촌
1. 왕래정도		
한달 2번 이상	60 (10.0)	98 (27.7)
한달 1번 정도	71 (11.9)	64 (18.1)
세달 1번 정도	282 (47.2)	112 (31.6)
1년 1번 정도	165 (27.6)	72 (20.3)
없 음	20 (3.3)	8 (2.3)
합 계	598(100.0)	354(100.0)
2. 연락정도		
거의 매일	65 (10.9)	91 (25.7)
일주일에 한두번	167 (27.9)	126 (35.6)
한달에 한두번	287 (48.0)	102 (28.8)
특정한 날에만	64 (10.7)	26 (7.3)
없 음	15 (2.5)	9 (2.5)
합 계	598(100.0)	354(100.0)

주: '일반농촌'에서 미상 7명 제외.

자료: 일반농촌의 보완조사(2000) 및 근교농촌조사(2000) 결과.

〈표 13〉 5년전과 비교하여 부모와 전출 자녀간의 연락 및 왕래정도의 변화 비교, 2000

구 분	일반농촌		근교농촌	
	왕래정도	연락회수	왕래정도	연락회수
늘었다	34 (6.5)	31 (6.0)	28 (11.5)	43 (17.6)
비슷하다	434 (83.5)	470 (90.4)	186 (76.2)	187 (76.6)
줄었다	52 (10.0)	19 (3.7)	30 (12.3)	14 (5.7)
합 계	520(100.0)	520(100.0)	244(100.0)	244(100.0)

주: 1) '일반농촌'의 미상 7명 제외.

2) 전출시기가 5년미만인 이촌자녀수(일반농촌: 78명, 근교농촌: 110명) 제외.

자료: 일반농촌의 보완조사(2000) 및 근교농촌조사(2000) 결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인 부의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노후 자녀의 부모부양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보면,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14〉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근교농촌에서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농촌에서는 전체 이촌자녀의 60%정도가 부모와 경제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근교도시에서는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이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교농촌에서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으나 전체의 33.6%는 특정한 날에만 받는 것으로 생활비의 보조라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약하다고 하겠다.

농촌 거주자들은 도시 주민보다 다른 가족원(주로 자녀들)에 대한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Lee, et al., 1994), 주는 사람이 상호 교환을 주도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농촌 주민이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Hofferth and Iceland, 1998). 이것이 농촌 거주 부모와 이촌 자녀들간의 일반적인 관계이지만 지역간의 경제력의 차이로 부모세대의 연령이 높은 일반농촌에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의 전출시기도 짧고, 젊은 연령층인 근교농촌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14〉은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반농촌에서 정기적인 생활비의 지원은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34.1%)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41.0%)가 많았으며, 근교농촌에서는 반대로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28.3%)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19.5%)보다 많았다. 일반

〈표 14〉 연구지역의 부모와 자녀간의 생활비 지원현황 비교, 2000

구 분	일반농촌		근교농촌	
	자녀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204 (34.1)	245 (41.0)	100 (28.3)	69 (19.5)
특정한 날에만	14 (2.3)	2 (0.3)	119 (33.6)	18 (5.1)
없음	380 (63.5)	351 (58.7)	135 (38.1)	267 (75.4)
합 계	598(100.0)	598(100.0)	354(100.0)	354(100.0)

주: '일반농촌'의 미상 7명 제외.

자료: 일반농촌의 보완조사(2000) 및 근교농촌조사(2000) 결과.

농촌에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은 교육등의 목적으로 도시로의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모의 생활비지원이 근교농촌보다 많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모, 자녀간의 방문이나 연락이 많은 근교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모, 자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밀접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전출한 지 5년이상인 부모와 전출자녀간의 경제적 지원의 변화를 조사하였다(〈표 15〉 참조). 근교농촌의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5년전에 비하여 늘었거나 줄은 경우 모두 전체의 5%정도 또는 그 미만이었으며, 비슷한 경우가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일반농촌에서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받거나 자녀에게 주는 경우 모두 '늘었다'가 '줄었다'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도 2% 포인트 정도에 불과하였다. 근교농촌에서 늘어난 경우가 전체의 12.3%로 다른 경우보다 많았으나 전체의 84%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의 경제적 지원의 변화가 크지않았다고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쳤지만 5년간의 소득증가¹²⁾와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 자녀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IMF이후 환율의 변동으로 달러표시 1인당 소득은 감소하였으나 원화표시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은 2000년에 2,224천원으로 1995년의 1,911천원보다 11.5%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b).

〈표 15〉 5년전과 비교하여 부모와 전출 자녀간의 생활비 지원 변화비교, 2000

구 분	일반농촌		근교농촌	
	자녀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자녀에게
늘었다.	24 (4.6)	27 (5.2)	30 (12.3)	4 (1.6)
비슷하다.	483 (92.9)	474 (91.2)	204 (84.0)	224 (93.0)
줄었다.	13 (2.5)	19 (3.7)	9 (3.7)	13 (5.3)
합 계	520(100.0)	520(100.0)	243(100.0)	244(100.0)

주: 1) '일반농촌'의 미상 7명 및 '근교농촌'의 '자녀로부터'의 미상 1명 제외.

2) 전출시기가 5년미만인 이혼자녀수(일반농촌: 78명, 근교농촌: 110명) 제외.

자료: 일반농촌의 보완조사(2000) 및 근교농촌조사(2000) 결과.

IV. 요약 및 결론

농촌사회의 변화를 사회 구성원인 인가와 원초제도인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인구이동이 없어도 낮아진 출산수준의 영향으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이루어 질 것이나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의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젊은 노동력의 부족과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현상은 새로운 가족형성이 제한되고, 기존 부모중심의 가족이 노령화를 거쳐 해체될 것이다.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농촌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최근 농촌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래 농촌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연구지역으로 청주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2개리(근교농촌)와 도시와 고속도로를 접하지 않고, 답작과 전작이 각각 50%내외인 충북 보은군의 2개리(일반농촌)를 선정하였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에서 1995과 1996년의 1차 조사와 1999과 2000년의 2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에 의한 면접전수조사이므로 연도 및 지역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였다.

두 연구지역(일반농촌 및 근교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농촌지역의 특징인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현상이 분명하였다. 일반농촌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 현상은 지속적인 젊은 연령층의 전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공동화와 새로운 전입인구의 극소는 기존인구의 노령화와 사망에 의한 소멸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체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근교농촌의 경우에도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일반농촌과 비교하여 젊은 연령층 인구가 두터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촌인구에서 연령별 성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3개의 연령계층(10세미만, 20대, 그리고 60대 또는 70대)에서 주변의 성비보다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농촌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근교농촌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근교농촌의 성비 패턴이 일반적인 농촌의 성비패턴과 달리 중소기업의 전입이나 생활비를 줄이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도시민의 전입이 많은 50세 전후의 성비가 높았으며, 과거에 도시 자녀와의 재결합으로 성비가 높았던 60세 이후의 연령계층에서 성비가 오히려 낮아졌다. 일반농촌에서 성비가 높은 노인의 연령층이 70세 이상에서 4년후 60대로 낮아지고, 근교농촌에서 이러한 성비의 특성이 소멸된 것은 도시로 진출한 자녀의 출산율 감소와 도시에서 할머니들의 역할 감소로 할머니들의 도시전출이 줄었고, 특히 근교농촌에서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으로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 전입과 전출자수의 차이는 물론, 연령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전출입자수는 근교농촌에서 많았으며, 전출과 전입의 차이는 일반농촌에서 더 컸다. 그리고, 일반농촌에서 전입자수는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전출자수는 10세에서 39세까지의 청소년층에 집중(전체의 94.5%)되었다. 그러나, 근교농촌의 경우는 전입자수에서 0-9세와 20-59세의 전입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젊은 연령층 인구의 전출이 많지만 이 연령층 인구의 전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출신자가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농촌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교육정도가 낮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므로 도시 적응이 어려운 경우이지만(변용찬, 1991: 105-106), 전국 자료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의 교육정도가 높았다. 이것은 농촌 출신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한 농촌으로의 이동이라기 보다는 근교농촌이나 신규개발지역과 같은 곳으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이다(김태현, 1996). 그러므로, 연구지역의 원주민 가구는 노령화되고, 새로운 전입가구가 점차 근교농촌 사회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지역의 일반농촌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도시로 전출하면서 부모세대만이 농촌에 잔류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가족의 형성 없이 부모의 노령화로 노인만의 가

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교농촌의 경우 도시로의 통근·통학이 가능하고, 도시의 소규모 사업체 이전 등으로 노부모와 자녀의 가족이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가구구성비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의 비싼 주거비와 자녀 양육 등의 편의 때문에 결혼한 자녀들이 근교농촌의 부모세대와 동거하는 경우 (DaVanzo and Chan, 1994 참조)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일반농촌의 경우 젊은 연령층의 자녀세대가 도시로 이주하고, 새로운 가족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노 부모세대만 잔류하다가 노령으로 사망하게 되면 기존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농촌의 지역사회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근교농촌의 경우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전통적 특성이 감소하는 대신 비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연령층의 전입으로 중간 연령층을 형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도시 특성이 강한 새로운 지역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두 번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조사지역에 대한 1차 조사(1995 및 1996년)의 경우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2차 조사(1999 및 2000년)에서는 이장이나 마을 유지, 그리고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거주가구 전부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사의 완전성의 차이 때문에 동일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이면서 실수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구성비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부 조사항목의 차이로 일반농촌에서 2000년에 보완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분석하는데 제약이 되었다. 1차조사에서 조사표를 보관하지 못하여 가구원의 비교나, 전출가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또한, 4년간의 변화비교는 너무 짧았다. 앞으로 농촌조사를 반복하면서 정확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지역연구가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인구이동과 사회경제발전: 인구이동특별조사심층 분석》,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및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공세권 외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권태환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39-56.
-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김일철 외 (1988), 《산지 및 산촌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부 및 농업진흥공사.
- 김태현 (1993), "근교농촌의 인구 및 직업구조," 문옥표 외,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경기도 파주군 J 부락의 사례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71-116.
- (1996), "농촌인구의 특성과 그 변화, 1960-1995: 인구구성 및 인구이동," 《한국인구학》 19(2), 77-105.
- 김태현·이창송 (1995), "도시와 농촌 인구회귀현상의 격차와 심화: 충북 인구현상의 변화 (1960-1990)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5, 95-125.
- 김태현·정현석 (2000), "근교농촌의 인구와 가족의 변화: 충북 청원군 D 마을 조사 결과," 《새마을연구》 8, 한국교원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5-37
- 김홍주 (1995), "한국 농촌가족의 변화양상과 가족문제," 《농촌사회》 5, 227-260.
- 농림부 (1999), 《귀농동향 및 창업자금 융자결과 보고》 1999. 1. 15, 내부보도자료.
- 문옥표 외 (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경기도 파주군 J부락의 사례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변용찬 (1991), "농촌 귀환이동," 문현상 외,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과학연구소 (1995), 《농촌마을의 실태와 주민생활: 충북 2개 농촌마을 조사결과》,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새마을연구소 (1996), 《근교농촌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교원대학교 새마을연구소.
- (1999), 《농촌주민의 가족생활과 의식구조》, 한국교원대학교 새마을연구소.
- (2000), 《2000 근교농촌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교원대학교 새마을연구소.
- 이문웅 (1993), "근교농촌의 도시교외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문옥표 외, 《근교농촌의

- 해체과정: 경기도 파주군 J 부락의 사례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56-199.
- 정경희 외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명채 외 (1996), "제10년차 조사결과 종합보고," 《한국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의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옥라 (1991),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가족구조에 미친 영향," 《한국의 사회와 농촌》 (최재석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일신사.
- 통계청 (1972, 1977, 1992, 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통계청.
- (199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1998),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1999),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 (2000a), 《2000 인구주택총조사잠정보고》, 통계청.
- (2000b), 《200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Antonucci, T. (1990), "Social Support and Social Relationships," in R. H. Binstock and L. K. George (eds.), *Th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3rd Edition, NY: Academic Press, pp. 205-226.
- Bumpass, L. L. (1990),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nge," *Demography* 27(4), 483-498.
- Burch, T. K. and B. J. Matthews (1987), "Household Formation in Developed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2), 495-511.
- DaVanzo, J. and A. Chan (1994),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Malaysians: Who Coresides with Their Adult Children?" *Demography* 31(1), 95-113.
- Easterlin, R. A. and E. M. Crimmins (1988), "Recent Social Trends: Changes in Personal Aspirations of American Youth,"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2(4), 217-223.
- Estes, C. (1999), "Critical Gerontology and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Aging," in M. Minkler and C. Estes (eds.), *Critical Gerontology: Perspectives from Political and Moral Economy*, Amityville, NY: Baywood, pp. 17-36.
- Frey, W. H. (1995), "The New Geography of U.S. Population Shifts: Trends toward Balkanization," in R. Farley (ed.), *State of the Union: America in the 1990s*, New York: Russell Sage, pp. 271-334.
- Fuguitt, G. V. (1985), "The Nonmetropolitan Population Turnaroun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259-280.

- Fulton, J. A., G. V. Fuguitt and R. M. Gibson (1997), "Recent Changes in Metropolitan-nonmetropolitan Migration Streams," *Rural Sociology* 62(3), 363-384.
- Gordon, C. C. and C. F. Longino (2000), "Age Structure and Social Structure," *Contemporary Sociology* 29(5), 699-703.
- Hofferth, S. L. and J. Iceland (1998), "Social Capital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Rural Sociology* 63(4), 574-598.
- Hirosima, K. (1987), "Recent Change in Prevalence of Parent-child Coresidence in Japan,"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0, 33-40.
- Kim, I. and E. H. Choe (1992), "Support Exchange Patterns of the Elderly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7(3), 89-104.
- Kim, T. H. (1999), "The Changes of Characteristics of Korean Rural Population," Presented paper at the First Asi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Jan. 29-30 1999, Bangkok.
- Kim, T. H. (2000), "Where is the Korean Rural Society Going?: On the Basis of the Population and Family Changes," in M. B. Toney and B. M. Choi (eds.),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ceedings from the Yun Kim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Research Laboratory, Utah State University, pp. 121-134.
- Kramarow, E. A. (1995), "The Elderly Who Live Alone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Perspectives on Household Change," *Demography* 32(3), 335-352.
- Lee, G., R. Coward, and J. Netzer (1994), "Residential Differences in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mong Older Persons," *Rural Sociology* 59(1), 100-109.
- Lee, Y. J. and A. Palloni (1992), "Changes in the Family Status of Elderly Women in Korea," *Demography* 29(1), 69-92.
- Martin, L. G. (1989),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4), 627-644.
- Martin, L. G. (1991), "Population Aging Policies in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Science* 251, 527-531.
- Michael, R. T., V. R. Fuchs, and S. R. Scott (1980), "Changes in the Propensity to Live Alone: 1950-1976," *Demography* 17(1), 39-53.

Transition of the Korean Rural Society: On the Basis of Population and Family Changes

Tai-Hun Kim

We have approached this study on the basis of population and family changes. We have selected two suburban and two general rural areas for this research. The suburban rural areas are located next to Chungju City, which is the biggest city in Chungbuk Province, and the residents are able to commute to Chungju. The general rural areas are located in Boeun Gun, which is a typical agricultural county in Chungbuk Province. We have conducted two round surveys at the research areas: 1995-1996 for the first round and 1999-2000 for the second round surveys. Since the surveys were completed ones interviewed by enumerators, we have used the survey data directly for the analysis by year and region.

The population structure by age and sex in general rural areas is shaped as a reverse triangle, which is becoming more serious because of the continuing emigration of young generation. Most of the young generation moves to the urban areas and their old parents only are left in their hometown, rural areas. When the parents become old and die, the number of households in the areas decreases rapidly. If there are no more new family formations, therefore, the rural society itself would cease to exist in near future.

However, the situation of suburban rural areas was a different case. Although the rural young generation has moved to urban areas, other young age groups have moved into the areas with their small enterprises and for the low living costs. The original residents become older and the young age groups are replaced with the new immigrants continuously. Therefore,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will be replaced with a non-agricultural society, which will have more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Key Words: changes of rural society, rural population, rural family, aging, migration